

	인도 (뉴 델 리) 사 무 소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해외동향보고서		담당자	하 승 창 소 장
			일 시	2 0 2 4 . 4 .

CEPA Insight

- 인도, 반도체 자립 선언
- 현대 기아, 현지화를 통한 시장 선점 노력

■ 인도 “올해말 첫 반도체 생산” 선언하며 ‘반도체 자립’ 시동

- 선진 기업 유치 경쟁에서 베트남과 치열한 경쟁, 반도체에 필수적인 수자원 확보도 중요한 과제

- 인도 정부가 올해 말 첫 ‘인도산 반도체’ 생산 계획을 제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 본격화를 선언. 반도체가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 속에 ‘전략 자산’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인도의 이런 움직임은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중심의 반도체 제조업 판도를 뒤흔들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
- 2026년 첫 ‘직접 제조 반도체’ 등장. 인도에서 직접 반도체를 제조할 공장은 2026년 가동될 전망. 인도 타타그룹은 지난달 13일 구자라트주 돌레라에서 3개의 반도체 제조 공장 정초식을 열고 2026년부터 상업용 반도체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타타전자는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파워칩’(PSMC)과 제휴해 돌레라에서 2개의 반도체 제조 시설 건설에 착수. 또한 인도 아삼주에도 반도체 제조시설 설립 중. 이 시설은 하루 4800만개 반도체 칩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
- 인도가 기술 이전 등을 통해 반도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극복은 과제.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물의 안정적인 확보 또한 중요한 변수. (출처 : 한겨레/2024.04.09)

■ "인도시장 잡자"...현대차·기아, 전기차 현지화 속도 높인다

- 전동화 전환 속도 맞춰 빠른 대응과 원가경쟁력 통해 주도권 확보
- 현대차·기아가 인도 현지 배터리 기업인 엑사이드 에너지와 광범위한 협력. 업계는 인도 정부의 전동화 전략에 맞춰 현대차그룹이 전기차(EV) 현지화 속도를 높일 것으로 봄.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연구소에서 엑사이드 에너지와 인도 전용 EV 차량의 배터리 셀 현지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

- 이 협약에는 ▲현대차·기아 전용 배터리 셀 개발 및 생산 ▲EV 및 하이브리드차(HEV) 등 전동화 전반에 대한 파트너십 확대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협력 등 이번협약으로 엑사이드 에너지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셀을 개발·생산해 현대차·기아 인도생산거점에 공급. 현대·기아가 향후 출시하는 인도시장전용 EV에 엑사이드에너지배터리를 탑재하는 것.
- 인도 정부의 전동화 전략에 보폭을 맞추기 위해 현대차·기아가 인도 시장 현지화 전략을 EV로 빠르게 확장.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EV 판매 비중을 30% 까지 확대하는 등 전동화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음. 현대차·기아가 인도 시장에서 구축한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해 EV 현지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음. 현대차·기아는 EV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현지화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 또 HEV 배터리까지 영역을 넓혀 현지 전동화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를 노림.

(출처 : 뉴시스/ 2024.04.09.)



■ 시사점

- **인도 경제정책변화에 주목하여 발전가능성을 미리 예측하는 투자 필요**
- 현대차의 경우 인도정부의 전동화 전략에 맞춰 발빠르게 현지화에 나섬. 주요부품 현지화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부품조달기간을 단축시킴으로 현지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이와 같이 인도 정부의 각 산업 육성 정책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수출 또는 현지 투자협력 전략을 수립해야함. 이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지닌 인도 시장을 선점해 나가야 할 것. 끝.